

		<h1>보도설명자료</h1>		
		배포일시	2020. 4. 20(화) 총 5매(본문3, 참고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현정, 사무관 서혜린, 주무관 유현서 • ☎ (044) 201-3940, 4643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담 당 자	• 철도산업지원센터장 오지택, 홍보협력팀장 백승현 • ☎ (031) 460-5340, 460-516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 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 민관협력 통해 싱가포르 진출

- 철도연 오송 철도시험선로 구축·운영경험 바탕으로 해외진출 적극 지원
 - GS건설, 철도연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공사 수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한국 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4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 철도시험인프라 구축기술을 싱가포르에 수출하기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의 시공사였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19.9월) 설계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을 긴밀히 지원해 왔다.
-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GS건설이 약 55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공사를 최종 수주하였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내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 신호, 통신 및 철도용품을 테스트하는 철도종합시험센터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공사로서, '24.12월 준공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9.3월 전체 길이 13km, 최고속도 시속 250km까지 시험주행이 가능한 오송 철도 종합시험선로의 구축 이후, 차량 주행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비롯하여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철도 전 분야에서 성능 시험이 가능한 철도시험 전용선로를 운영해오고 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9.9월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시공하였던 GS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배치, 운영계획 등 싱가포르 사업제안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했으며, 우리 정부도 2019 한-ASEAN 정상회담('19.11월), ASEM 교통장관회의('19.12월) 등 싱가포르 교통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싱가포르에 한국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 '20.1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 일행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부청장 및 발주 담당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철도시험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철도연의 적극적인 기술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과 공공 부문이 입찰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한 결과, 지난 4월 17일 GS건설이 주어진 부지 내 운영 효율성 극대화,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험센터 계획 제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이번 수주는 지난 '19.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철도 新르네상스 시대 개막에 따른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에서도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민관 협력을 통한 우리 철도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철도산업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이다.

- 특히,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인 싱가포르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철도시험인프라가 건설됨으로써 향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ASEAN 역내 철도기업과 우리 철도기업간 협력의 장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철도 해외 진출 관련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모델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사업 수주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인도, 베트남 등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철도종합시험선로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진출은 국내에 철도 주행 전용선로인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가 운영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쾌거”라며,
- “그간 철도연이 한국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우리기업이 철도시험인프라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수주하고 해외 철도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에 선점된 기술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서혜린 사무관(☎044-201-4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업 개요

- (사업명) Design & Construction of ITTC
 - * ITTC : Integrated Trains Testing Center
- (발주기관) Land Transport Authority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 (발주형태) Design & Build
- (사업예산) 재정사업, 약 6억 3950만 SGD (한화 약 5,500억원 추정)
- (사업기간) 2024.12.30.(준공)
- (사업범위)
 - 싱가포르 전동차 대상 3개 시험선 건설
 - 차량편성은 3/4/6/8편성 고려
 - Endurance Track [3km]
 - Performance and Integration Track [2.5km]
 - High Speed Track [2.8km, 최소 100kph 이상]
 - 입환선 및 유치선 포함
 - DC 750 제3궤조, DC 1500 OHC 형식 모두 고려
 - 차량 light maintenance workshop 1개소 건설
 - 차량 refurbishment workshop 1개소 건설
 - Operation Control Center Building 1개소 건설



참고 2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개요

- (위치) 세종시 전동면 ~ 충북 청원군 일원
- (사업시행자)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사업기간) '14.9월 ~ '18.12월
- (사업비/규모) 2,399억원(국비) / 총 연장 12.99km

